

방 문 기

1999년 미국 농공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김 성 민*

1999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1999 연례 미국 농공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미국 농공학술대회는 캐나다 농공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탑승 대기중 미국 농공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농업기계화 연구소의 김영중 연구관과 정선욱 연구사를 만날 수 있었다. 7월 17일 저녁 8시30분에 토론토행 대한항공 073기에 오르는 나는 장장 13시간의 비행 끝에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동일 저녁 9시경에 도착하였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캐나다의 세관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였다. 다행히 김 연구관과 정 연구사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되어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우리가 묵은 호텔은 Inn on the Lake이라는 온타리오호수 근처에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였다. 밤 11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원에 있는 카페에서 시원한 맥주로 갈증을 풀고 캐나다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다음날 우리는 학술대회가 열리는 셰라톤호텔로 향하였다. 이 호텔은 토론토 시내에 위치하여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차로 15분 가량 떨어져 있었다. 학회장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친 우리들은 Texas A&M에서 postdoc을 하고 있는 이원석박사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이틀간 차로 운전하여 이 곳 토론토까지 왔다고 했다. 이박사는 나와 함께 미국 UC Davis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약 2년만의 처음 만나는 기쁨을 더해 주었다. 일요일 오후 시간이 빈 나는 혼자 토론토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지하철과 전차를 이용하여 온타리오 호수가에 위치한 Harbourfront라는 곳으로 향했다. 이 곳에서는 실내 경기장이자 토론토 Blue Jays의 홈구장인 Skydome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CN 타워를 볼 수 있었다. 이 곳은 토론토의 관광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화창한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저녁에는 셰라톤호텔에서 있던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리셉션 장소는 모임의 규모에 비해 작은 느낌이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이 제공되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즐거운 대화를 주고 받았다. 나는 이 곳에서 논문 지도교수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의 Paul Chen 교수, 일본 북해도대학의 Shuso Kawamura 교수, 국립 대만대학의 Suming Chen 교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John Reid 교수 등을 만나 최근의 근황과 연구 관심사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이루어진 학술발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약 2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나는 화요일에 논문 발표가 있어 월요일에는 관심 분야

*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기계공학 전공.

의 논문 발표 장소에 가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밀농업 관련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고 발표 장소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앞으로의 농업기계 연구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었다. 저녁에는 서울대학교 조성인 교수님, 이원석 박사 가족, Rutgers 대학에서 postdoc을 하고 있는 강석원 박사,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김영중 연구관과 정선옥 연구사와 함께 한인타운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미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의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요일은 오후에 논문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오전에 관심분야 논문 발표에 참석한 후 맥도널드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 오후 발표를 준비하였다. 이 날 저녁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만찬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 곳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NC State University의 Frank Humenik 교수 부부는 한국에 다녀간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으며 한국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Humenik 교수는 지금도 한국의 한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고 했다.

수요일에는 북해도 대학의 Kawamura 교수 일행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날 논문 발표가 있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할 수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토론토



▲ -나이아가라 폭포를 배경으로 -

폭포 근처까지 가는 유람선을 탄 사람들은 소나기처럼 내리는 폭포의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파란색 우비를 착용하고 있다.

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온타리오 호수를 왼쪽으로 끼고 고속도로를 달리자 고속도로 주위에는 과수원과 winery가 많이 눈에 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Niagara Falls에 도착하자 우리는 교통표지판을 따라 폭포로 향하였다. 이 도시는 작은 관광도시로 깨끗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다.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하여 양쪽에서 볼 수 있으나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것이 더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폭포 주위의 공원은 잘 관리되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폭포 주위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날려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았다. 폭포는 상상외로 장대했다. 우리는 폭포가 한 눈에 보이는 식당에서 점심을 한 후 폭포가 있는 공원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했으며 공원 주위의形形色색의 꽃들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연출했다.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서울행 비행기가 밤 11시 50분에 출발하여 토론토를 둘러 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묵은 호텔에서 나와 짐을 셰라톤호텔에 있는 짐 보관소에 맡기고 혼자 토론토 시내를 구경하였다. 오후에는 시내에 있는 University of Toronto를 찾았다. 국회의사당 옆에 위치한 토론토대학은 방학이라 학교는 붐비지 않았으나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많았다. 넓은 캠퍼스와 고전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잘 조화된 캠퍼스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캠퍼스에서는 멀리 CN 타워가 한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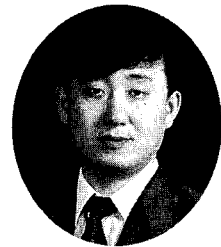


▲ - 토론토대학 교정에서 -
멀리 왼쪽으로 CN 타워가 보인다.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토론토의 첫 인상은 좋았다. 시차가 적응될 즈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연구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면에서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목요일 밤 11시 50분에 출발한 비행기는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서울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금요일 하루를 완전히 비행기 안에서 보낸 첫 번째 비행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이 또 눈에 띈다. 일본에서는 약 40명의 연구자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도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해외에서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미국 농공학술대회는 연구 발표자 뿐만 아니라 20개 이상의 workshop을 열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공 학생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미래의 농공학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같이 온 연구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명실공히 세계 농공학자들의 잔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기계학술대회도 전공 학부생을 포함한 전 농업기계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농업기계인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느꼈다.



학 위 취 득



성 명 : 박 원 엽 (朴元燁)

생 년 월 일 : 1965년 11월 11일

취 득 학 위 명 : 공 학 박사

학 위 수여 대학 : 성균관대학교

학 위 취득년월일 : 1998년 8월 25일

학 위 논 문 : 연성 궤도형 차량의 견인성능 예측 모델 개발